



2. 출제개요

가. 출제의도

- 202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구성은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언어의 특성, 플랫폼 경제의 발달과 규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편향성, 공유경제, 근로기준법, 광고 매체의 언어 사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 교과서의 지문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석, 적용, 평가함을 넘어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나.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알고리즘 판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에서 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과 결정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의 기본 성향과 패턴을 좇아 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사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편향을 강화하게 되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관련 교과서

- 구정화 외(2018), 『통합사회』(pp.86~91), 천재교육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pp.84~87), 동아출판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pp.128~135), 비상교육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pp.128~137), 천재교육
 - 정탁준 외(2019), 『생활과 윤리』(pp.123~131), 지학사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pp.116~133),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pp.64~66), 천재교육
- 제시문 <나>는 공정경쟁과 혁신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초로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의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현재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기사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이 오히려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 간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는 한 측면을 제시하는 한편,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의 혁신 활동을 통해 시간, 노동, 자원 등을 공유하여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진하는 측면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부동산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정창우 외(2018), 『통합사회』 (pp.134~136), 미래엔
 - 김진영 외(2018), 『경제』 (pp.38~39), 미래엔
 - 박형준 외(2018), 『경제』 (pp.86~87), 천재교육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pp.128~137), 천재교육
 - 김동환 외(2018), 『국어』(pp.232~240), 교학사
 -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pp.206~227), 창비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pp.246~260), 미래엔
- 제시문 <다>는 인간의 사고를 담아서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언어가 왜곡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사용된 '더블스피크'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언어의 왜곡이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 사용되는 예와 최근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인 각 경제에서, 배달 혹은 승차 공유업체 기업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더블스피크의 사용이 각 경제에서 단순히 각 경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주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최저임금 회피, 기업의 납세 부담 최소화, 고용기준법 회피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각 경제 종사자들이 노동자 혹은 직원으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한 채, 개인사업자라는 미명 하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기존보다 더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교과서

-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 (pp.206~227), 창비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246~260), 미래엔
- 이도영 외(2018), 『화법과 작문』 (pp.232~235), 창비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32~33), 비상
- 김동환 외(2018), 『국어』 (pp.232~240), 교학사
- 신유식 외(2017), 『국어』 (pp.174~197),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 (pp.64~66), 천재교육
- 최원식 외(2018), 『문학』 (pp.12~13), 창비
- 고희진 외(2018), 『경제』 (pp.86~87), 천재교육
- 서범석 외(2018), 『정치와 법』 (pp.164~168), 지학사
- 구정화 외(2017), 『사회·문화』 (pp.194~196), 천재교육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136~137), 동아출판

다. 문항 해설

<문제 1>

- 【문제 1】은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알고리즘이 주로 활용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와 관련한 분석적 사고와 적응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알고리즘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파악하고, 제시문 <나>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을 큰정부와 작은정부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 <가>는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해 다룬 신문기사와 인간의 편향성에 대해 다룬 대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의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였으며, 제시문 <나>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담합과 소비자 문제를 다룬 보고서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발췌·재구성하였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파악하여 알고리즘 판단과 인간의 편향에 대한 관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플랫폼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정부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 신자유주의(작은정부론)와 수정자본주의(큰정부론)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롤스의 관점을 채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여야 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하이에크의 관점을 채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여야 한다.

<문제 2>

- 【문제 2】는 언론이나 광고에서 사용되는 문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사고를 담아서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언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업체에서도 이용자와 사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더블스피크(Doublespeak)’ 즉 이중어라는 용어를 빌려서, 언어가 가지는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를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하는 문구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제이다.
-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조지 오웰에 의하면, 글쓰기는 진짜 목적과 외부에 내세우는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본능적으로 긴 단어를 쓰거나 진부한 관용어구를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조지 오웰 시대의 역사적 맥락이 오늘날과는 다르다. 하지만 조지오웰의 <1984>에 제시된 언어 사용과 관련된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글쓰기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사법과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은 글의 표현 방법이 글의 목적과 내용, 글이 쓰인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글쓰이의 관점,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이념 등을 독자가 판단하여 읽는 활동을 요한다. 글이 쓰인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자료 등에 강조되거나 축소·생략된 부분, 심지어 왜곡된 부분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문제는 최근 급격한 성장과 함께 성장통을 겪고 있는 플랫폼 경제 혹은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의 성장통을 언어가 가지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글 속에 나타난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먼저, 제시문 <다>의 전반부에서 <1984>라는 조지 오웰의 문학 작품 속에서 더블 스피크라는 이중어를 사용하여 원래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왜곡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더블스피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의 후반부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특징 중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목적인 근로기준법과 같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에 제시된 두 상반되는 사례를 통하여, 언어 표현이 가지는 중의적인 기능으로 인해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와 그러한 중개업체에 종사하는 드라이버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는 드라이버가 독립계약자로서 자유롭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였지만, 실제 공유 중개업체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드라이버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보다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에 얽매인 상태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공유업체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3. 평가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의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의 AI 알고리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과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주요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가> 및 제시문 <나>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및 혁신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가지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차원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문제 1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의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인간의 편향성 극복 차원, 인간의 편향성 강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둘째, 제시문 <가>에 나타난 AI 기반 알고리즘 하에서의 편향정보와 제시문 <나>에서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이슈 및 혁신 활동의 주요 특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한다.

셋째, 제시문 <가>에 제시된 AI 기반 알고리즘의 편향정보와 제시문 <나>에 제시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이슈 및 혁신 활동 정보를 활용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하이에크(노예의 길)와 롤스(정의론)의 발췌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 관점을 선택하여 정부 차원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문제 1〉

- ① 제시문 <가>의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인간의 편향성 극복 차원, 인간의 편향성 강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 ②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이슈 및 혁신 활동을 각각 자세히 파악한다.
- ③ 제시문 <가>와 <나> 및 문제에서 주어진 하이에크(노예의 길)와 롤스(정의론)의 발췌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 관점을 선택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문제 2】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다>의 후반부에 제시된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더블스피크의 특징을 가질 수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사례 (A)와 사례 (B)에 적용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에 제시된 더블스피크의 관점에서 사례 (A)를 비판하고, 사례 (B)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제시문 <다>의 후반부와 사례 (A)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다>의 후반부에 제시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B)의 사례를 논하는 과정에서 언급할 수 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문제 2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1984>의 더블스피크가 가지는 특징을 파악해서 기술하고, 더블스피크가 소설 속에서만이 아니라 정치·경제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언어의 특징임을 파악한다.

둘째, 제시문 <다>의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1984>에서 사용되는 더블스피크와 유사한 특징이 있으며, 그 이면에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파악한다.

셋째, 사례 (B)에 제시된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례를 분석하여, 사례 (A)에서 사용된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의 용어 사용으로 인해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혹은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 2〉

- 제시문 <다>에서 <1984>에서 사용되는 더블스피크의 특징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 제시문 <다>의 정치, 경제 및 사회 현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1984>에서 사용되는 더블스피크와 유사하게 언어 표현을 통해 현상을 왜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한다.
-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와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례를 비교하여 더블스피크가 가지는 기능으로 인해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와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례를 비교하여 공유경제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혹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4. 예시답안

【문제 1】

〈예시 답안 1〉

제시문 <가>에는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알고리즘 판단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보편적 합리성을 지향하므로 소수의 단서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즉, 인간의 직관적 판단은 감정에 의해 편향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직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알고리즘 판단이 오히려 인간의 편향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에는 인간의 편향성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역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주관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사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공정경쟁 이슈가 나타나 있다. 플랫폼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나 담합에 따른 시장 질서 훼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견제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막 진입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도가 될 것이다.

〈예시 답안 2〉

제시문 <가>에는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알고리즘 판단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보편적 합리성을 지향하므로 소수의 단서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즉, 인간의 직관적 판단은 감정에 의해 편향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직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알고리즘 판단이 오히려 인간의 편향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에는 인간의 편향성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역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주관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사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AI 기반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 측면에 있어, 자원의 집중화와 알고리즘 담합을 통한 공정 경쟁 이슈가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자원이 집중화되고 대형화된 플랫폼 기업의 경우, 사업확장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알고리즘 기술을 편향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대형화된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생 플랫폼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불공정경쟁을 하는 플랫폼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 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강화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형화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정책은 롤스의 정의론에 언급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플랫폼 기업의 혁신 활동을 보다 지지한다면 하이에크(노예의 길)의 관점이 정부 차원 규제 완화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공정경쟁 이슈를 우려한다면 롤스(정의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정부 차원 규제강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도록 논할 수 있다.)

【문제 2】

〈예시 답안〉

제시문 <다>의 전반부에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반영된다.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내용이나 표현 방법, 자료 등에 강조되거나 축소 혹은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왜곡되는 부분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제시문 <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서 소개된 더블스피크를 소개한다. 더블스피크는 단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숨기고 왜곡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더블스피크는 소설뿐만 아니라, 정치 및 경제 분야 등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가 가지는 힘을 통해 우리가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시문 <다>의 후반부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의 기업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 혹은 노동자와 같은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과업' 혹은 '독립계약자'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용어의 사용을 회피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실제 사례 (A)와 (B)를 비교해 봄으로써 언어가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와 독립계약자로 계약을 맺은 바란과 같은 노동자들은 기존의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택시운전사와는 달리 회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보장, 실업 급여 등과 같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 채, 독립계약자 혹은 소위 개인사업자로서 일에 얽매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버가 광고한 것과 같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란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주당 평균 48시간 정도의 일을 해도 렌트비와 유류비 등 제반 비용을 제한 순수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공유업체들은 화려하고 수사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전달되는 현실을 왜곡하기보다는 바란과 같이 그 공유업체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